

문화전당 ‘春風’... 광주도심 ‘훈풍’



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화려한 야경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에 있는 문화전당은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 민주평화교류원 등 5개원을 아우른 복합문화공간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특별법 통과에 시민·해외 유명인사 등 방문 줄이어 문화기업 잇따라 정착... 지역특화 문화상품 기대감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9월)을 앞두고 ‘문화전당 효과’가 광주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화전당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고 ‘문화전당 특수’를 노리고 광주에 동지를 둔 문화기업들도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면서 문화산업의 씨앗이 움트고 있는 것이다. 17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현재 문화전당을 찾은 방문객이 4440명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외국인 관람객은 473명에 달했다. 이는 공식 방문 기록으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면 1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 미술전문가와 유명인사들도 잇따라 문화전당을 찾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스미소니언 프리어·새클러미술관의 줄리안 레이비 관장은 “콘텐츠 교류 등 문화전당과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제롬 파스키에 프랑스 대사를 비롯해 독일 라이프치히시 비크하르트 융 시장, 윌프레드 윙 홍콩예술발전국 위원장 등 유명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전남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13개국 40여명)도 문화전당 투어에 참여했다. 광주 동구

는 문화전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문화 중심구’로서 위상을 다지기 위해 문화전당 투어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산업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독식했던 학술·연구영역을 맡는 문화기관이 생겼다. 지난 2012년 5월 문을 연 주스 컴퍼니(Juicy comeFunny)는 광주비엔날레 중장기 용역을 수행했고 외교부의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을 도맡았다. 이 업체는 학술 운영, 마케팅, 문화기획 부문을 선도하고 있다. 주스 컴퍼니 이한호 대표는 “광주는 문화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시장이 취약하지만, 아시아를 겨냥한 문화전당이 개관하면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본다”며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특화 문화상품을 개발하

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지난 2012년 광주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마이스 원(mice one·대표 노승환)은 국제행사 부문을 개척하고 있다. 행사 기획·진행, 통·번역 서비스 등 전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굵직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문화부가 광주에서 개최한 한·남아시아 장관회의를 치렀고 올해 하계유니버시아드 사전 행사로 열린 2015에픽스 포럼(Epics Forum)과 2015 유리티어프로그램(YLP)을 도맡았다. 소규모 문화공간들도 문화전당 주변에 생겨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총장로 1가 입구에 소형 공연장(100석 규모)을 갖춘 감성문화공간 ‘보헤미안’이 오픈했다. 광주지역 극단인 ‘푸른연극마을’은 동구

장동 옛 인쇄아트홀에 전문 문화예술공간인 ‘씨어터 연바람’을 개관했다. 문화전당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명동과 불로동 거리에는 문화카페 거리가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문화개발원 관계자는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핵심축인 문화전당이 9월 개관하면 광주문화계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광산동에 있는 문화전당은 지난 2005년 착공됐으며 오는 9월4일 개관할 예정이다. 민주평화교류원, 아시아 예술극장 등 모두 5개 원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권 문화 교류를 축으로 문화창조·생산·유통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문화기관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올해도 5·18 기념식 제창 어려울 듯

박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올 5·18 기념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표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기념곡 지정제도가 없

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회동에 배석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 문제는 국가보훈처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하지만 보훈처는 그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해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보여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를 해결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논의를 진행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이날 회동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봤다. 다만, 최저 임금의 경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문 대

文 “기념곡 지정” 요구에 朴 “보훈처서 논의” 부정적

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3자 회동에서는 또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경제법안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논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합의했다. 연말정산에 관해서는, 문 대표는 5500만

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500만원부터 7000만원까지는 2~3만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500만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단 국방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썩어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개특위, 호남 2명 의석수 지키기 비상 신정훈·김윤덕 의원 참여

국회가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불의 전쟁’이 시작됐다. 특히 호남은 지역구 인구 하한선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구가 8곳이나 되는데다 인구 기준으로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의석수 지키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관련기사 4면> 국회 정개특위는 지난해 지역구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대 1로 줄여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개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정개특위 구성 명단에 합의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선임됐으며,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태연 의원이 맡았다. 여당 위원으로는 김희선, 김명연, 경대수, 박민식, 여상규, 박대동, 김상훈, 민현주 의원이 참여한다. 야당에서는 새정치연합 박영선, 유인태, 백재현, 김상희, 신정훈, 김윤덕, 박법계, 김기식 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참여, 여야 10명씩 동수로 구성됐다.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는 나주·화순의 신정훈 의원과 전주 완산 갑의 김윤덕 의원이 참여한다. 야당 간사는 순천 출신 김태연 의원이 맡았다. 정개특위는 18일 첫 회의를 갖고 8월31일까지 활동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미제사건 전담팀 생색내기 운영 실마리도 못찾는 경찰 ▶6면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HERA

나르시스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생명력
헤라 시그니아 크림

고귀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의 상징 나르시스-그 절정의 생명력을 피부에 선사하는 안티에이징의 정수, 헤라 시그니아 크림
3백만 나르시스 스템셀이 피부에서 피어나는 순간
거울 속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명역사학자 이모레 카몬셀레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료요금부담) www.hera.co.kr